

말씀의 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50장 14~15절, 23절>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로 들어온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102명이 함께 왔지만 겨울을 넘기면서 1621년 봄, 겨우 절반가량인 5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플리머스에 있는 인디언들이 2000명 정도 살았는데 그 시기 즈음 이미 90% 가까운 인디언들이 극심한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남은 주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심고 척박한 농토를 가꾸어 가을이 되었을 때 약간의 소출이 있었고 새로운 땅에서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이 도움을 준 90여명의 인디언들을 불러 함께 감사 행사를 열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초였습니다. 닭을 잡으려했는데 다 같이 먹기에는 닭이 너무 작아서 칠면조를 잡은 것이 또한 추수감사주일 전통이 된 것입니다. 현재 감사한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는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돌파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불순종하여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나 2: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나라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의 질척하고 숨이 막히는 좁은 공간에서 두려움과 고통이 많았을 것입니다. 3일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고,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서원함으로 드리자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요나 2: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도 나오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가둘 환경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사돈인 북이스라엘왕 아합을 도와서 아람을 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셨는데,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과 엄청난 연합군을 일으켜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낫을 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예언을 합니다. 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하 20:21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선택은 "여호와께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쳐들어온 연합군을 무참히 쳐부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며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감사에는 엄청난 돌파와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 답답하십니까?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00ml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무거워야 근육이 생깁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견디기 버거울 때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되고 여러분신앙을 더욱 성장케 합니다.

시 50: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며 구하는 자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자의 인격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좀 더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는 없고 늘 달라고 하는 기도만 있다면 어찌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는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아홉 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움과 섭섭함을 드러내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은혜를 받고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10명 중에 10%만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가 필요한 것만 똑 따먹고 주신 은혜에 대해 표현할 줄 모르는 현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과 탄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인격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시고 그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표현했던 한명의 치유받은 문둥병자는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그 하나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은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대인관계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감사는 결정적인 연결고리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올 한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릴 지켜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업,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은혜 받은 자의 가슴 절절한 감사를 통해 계속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6년 10월 9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0. 1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창세기 12장 4~10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우선 순위"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